

# 경북도, '전선지중화사업' 국비 66억 지원... 광역지자체 최대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 선정  
지난 4년간 1045억 들여 추진  
지역 현안사업 노력... 결실 맺어  
내년 한전·통신사와 2년간 시행

경북도는 '2024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공모에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년간 총사업비 1045억 원을 들여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 전국 420억 원 규모 중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인 66억 원을 확보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경북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이번 공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북도 '2024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공모에 6개 시·군 8개 사업이 선정. /경북도청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그린뉴딜분야 세부 추진 과제로 학교 주변 통학로, 전 통시장, 도시재생구역, 노후 산단 주변 전력선 및 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8

개 시군에서 13개소를 신청해 10월 최종 6개 시군 8개소(학교통학로 7개소, 도시재생 1개소)가 선정됐다.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331억원(국비 66, 지방비 108, 기타 157) 규모로 전체 3.73km를 지중화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 경주시 월성초 통학로(0.25km), 안강제일초 통학로

(0.44km)에 60억원, 안동시 북주여중 외 2개소 통학로(0.75km) 45억원, 구미시 구미여중 통학로(0.33km) 64억원, 영천시 완산로 도시재생(0.28km) 22억원, 청송군 화목초 통학로(0.84km), 안덕중학교 통학로(0.62km) 112억원, 칠곡군 인평초 통학로(0.22km) 28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

시·군에서는 내년 초 한국전력·통신사(SK, LG U+, KT 등)와 전선지중화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도로 등에 설치된 전주 및 각종 전선, 통신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등의 교통 장애, 자연재해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함평군

#### 국향대전, 17일간 대장정 성료

'나를 위한 행복 여행 in 함평국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라남도 대표 가을 축제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함평군은 "지난달 20일 개막한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호평 속에 폐막식을 끝으로 지난 5일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국향대전은 1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6억 3천만원의 입장권 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군민이 직접 참여한 함평 청정농·특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편의점이 축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8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 담양군

#### 지자체 생산성 대상 문화분야 1위

전남 담양군이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 분야 우수 사례 전국 1위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선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14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361건의 우수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건(우수 1, 장려 2)을 선정했다.

담양군은 '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 2022 담양 아트워크!' 사례를 통해 문화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 통영시

#### 강구안서 캔들라이트 콘서트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오는 11일 저녁 6시 강구안에서 세계 100개 이상 도시, 300만 명이상이 함께하는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해 9월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추진 중인 2차년도 야간관광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통영 야간관광의 핵심 랜드마크인 강구안에서 수천 개의 촛불(LED 캔들)이 밤의 무대를 밝히는 고품격 음악 공연으로 준비했다. 기타리스트 네드 달링턴, 첼리스트 우창훈이 출연해 약 65분간 가을 밤바다를 배경으로 통영만의 낭만적인 야간관광 매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통영(경남)=장병호 기자

### 산청군

#### 올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1위

올해 국내에서 여름 휴가 여행을 다녀온 소비자들은 산청군이 여행지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6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드에 따르면 6~8월 중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 728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산청군이 1000점 만점 중 769점을 획득하며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39계단 수직 상승한 수치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 6개 사업, 투자계획 평가서 'A등급'

### 곡성형 교육생태계 완성과 청년자립 기반 조성 목표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중심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액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4단계(S~C등급)로 등급을 나눠 차등 지급된다. S등급(144억원)은 전국에서 4곳, A등급(112억원)은 14곳, B등급(80억원) 26곳, C등급(64억원) 45곳

이 선정되었으며, 곡성군은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곡성군은 사람이 머무르고 찾아오는 매력 곡성을 비전으로, 곡성형 교육생태계 완성 및 지역자원 연계 청년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여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스마트 청년농부 캠퍼스 조성 프로젝트 ▲가족형 워킹빌리지 조성 ▲곡성 유학마을 조성사업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곡성형 청년 활력마을 만들기사업 총 6개 사업을 제출하였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존사업은 고도화하여 내실있게 챙기고,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활력을 증진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추진 탄력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진주시는 지난 4일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총사업비 33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산읍(제)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내 부지면적 1만 1750㎡, 연면적 5832㎡ 규모로 조성된다. 벤처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지원시설이 들어선 건물 1동과 주차장, 쉼터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 예정이다.

2026년 벤처 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장비 및 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 전문시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주를 중심으로 경남도내 그린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감도. /진주시

바이오 유망기업 30개사를 입주시켜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운영, 5개사 이상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설계용역 발주 및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미래농업의 신성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진주시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 영주시, 출산율 위해 맞춤형 지원 '박차'

### 임산부·난임부부·출산가정 도와

경북 영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가정까지 시기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축복받은 우리아기 희망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해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 준비를 돕는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체외수정 시술비(신선배아 1~9회,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1~7회 70만원), 인공수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사진.

정(1~5회, 최대 40만원)을 1인당 최대 총 21회까지 지원한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경북도 최초로 지원한 산후 조리비 100만원과 출생축하금 5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g7677@

## 부산시,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부산 개최를 계기로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

부산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2전시장과 누리마루APEC 하우스에서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Invest KOREA Summit 2023)'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가대표 기업투자 설명회(I

R)로서, 산업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2006년 개최 이래 최초로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행사 규모도 역대 최대로 확대해, 기존 외국인 투자주간으로 운영되던 행사를 범정부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유치 박람회 컨셉을 도입했다. 주한외교사절, 외신, 해외투자가, 국내 앵커기업 등 약 1천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장병호 기자